

“‘AI·모션바람’ 기반 생활패턴·공간환경 특화 냉방 구현”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 등 소개
음성비서 ‘빅스비’ 통해 간편제어
갤러리 프로 모델 사전판매 실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은)기류 혁신을 구현한 AI·모션바람’ 기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냉방 경험을 업그레이드했다. 글로벌 에어컨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

신문선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개발팀 상무가 5일 삼성전자 우면 R&D 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 스탠드형인 ‘비스포크 A 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인 ‘



신문선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개발팀 상무가 5일 삼성전자 우면 R&D 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로 2개 라인업을 소개했다.

신 상무는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최초로 무풍 제품을 출시했고 1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디자인 업그레이드, AI모션바람, 무풍 쾌적 제습, 이지케어 등의 방향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6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에어컨은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특화된 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AI·모션 바람’ 기능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시원함을 바로 전달하는 ‘AI 직접’ ▲사용자가 없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AI 간접’ 등 AI 기반으로 동작하는 2가

지바람과, ▲좌우 공간으로 회전하며 넓은 공간을 고르게 순환하여 냉방하는 ‘순환’ ▲시원한 바람을 최대 8.5m까지 보내는 ‘원거리’ ▲직바람 없이 쾌적함을 선사하는 ‘무풍’ ▲전작 대비 19% 더 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을 제공하는 ‘맥스(Max)’ 등 일반 모션 바람 4종을 지칭한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이번 신제품에는 사용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음성비서 ‘빅스비’가 적용됐다. 사용자는 제품 사용법을 묻거나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 “습도 60% 이상이면 에어컨 켜고 제습 모드 설정해 줘” 등 자연스러운 발화로 기기를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편안한 수면을 돕는 ‘웨어러블 굿슬립’ 기능도 탑재됐다. 에어컨과 연동된 갤럭시 위치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면 단계별 최적화된 맞춤 냉방 운전을 실행해 깊은 수면 유지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디자인이 한층 간결하게 개편됐다. 가로 넓이가 전작 대비 30% 슬림해졌고 돌출되는 부분이 최소화돼 설치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일체감을 구현한다.

김현수 삼성전자 에어솔루션 디자인 담당 그룹장은 “하나의 소재처럼 느껴지는 단순함으로 부품 영역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경쟁사 대비 훨씬 슬림해진 사이즈로 공간에 적극 녹아들고 조화로운 강조해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에센셜 화이트, 에센셜 플럼, 사틴 그레이지, 미스티 그레이 등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또 컬러 액정 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감성을 더하고 동작 중에는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까지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에 한해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93만 원의 제품 할인과 삼성케어플러스, 올리브영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높아지는 탄소 장벽... K-기업, 수출부담 가중

EU 집행위, 유럽산 우대 정책 예고
철강·조선분야 등 경쟁력 약화 우려

유럽연합(EU)이 탄소 규제와 역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EU 거래·조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조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가동에 더해 EU가 유럽산 우대 기조를 내세우면서, 유럽 시장의 비용·조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로이터와 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산 우대 패키지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선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장비·서비스의 EU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럽은 국내 조선업에 의미 있는 수요처다. 유엔 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의 이달 업데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한국의 선박·보트 및 기타 부유 구조물 수출액은 24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EU의 한국산 해당 품목 수입액은 54억8000만 달러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 선박 수출의 20% 이상이 EU 시장에서 소화된 셈이다.

유럽의 역내 생산 확대가 곧바로 조선 경쟁 구도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해운·조선 전문 분석기관 마리티마에듀케이션은 지난해 기준 유럽의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을 4%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53%)·한국(27%)·일본(14%)과 비교하면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EU는 역내 배출권거래제(ETS) 부담과의 형평을 내세워 수입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CBAM도 도입했다. CBAM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가, EU 수입업자가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올해 국내 철강업계의 CBAM 부담액을 851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24년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 영업

이익 합계(2조2790억원)의 3.7% 수준이다. SGI는 현행 제도와 무상할당 축소를 전제로 할 경우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공개하고 수소환원제철, 전기로(EAF) 확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로드맵과 그린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웠다. 현대제철은 북미 고단가 시장 공략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투자를 추진 중이다.

윤현규 국립장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EU의 조치는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흐름”이라며 “유인책이 민간 선주까지 확대되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기자재·인력·설계 등 생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산업인 만큼, 한국·중국 수준의 기반을 유럽이 단기간에 갖추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G전자, 인도서 ‘퓨로텍’ 혁신기술 선보인다

뉴델리 ‘플라스틱인디아’ 참가

LG전자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항공기 성능 소재 ‘퓨로텍’의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인도 최대 규모의 산업 소재 박람회 ‘플라스틱인디아’에 참가해 ‘퓨로텍’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약 80개 국가에서 3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우리 파우더 형태인 퓨로텍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고무 등 재료를 만들 때 소량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등을 막는 항균·항곰팡이 기능성 소재다.

LG전자가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서 가전·건축자재·위생용품·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퓨로텍 솔루션을 B2B 고객에게 소개하고 신규 사업기회를



LG전자가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인도 최대 규모의 산업 소재 박람회 ‘플라스틱인디아’에 참가해 항공기 성능 소재 ‘퓨로텍’을 선보였다.

/LG전자

발굴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차현정 기자

2025년 실적 발표

에코프로, 연간 흑자전환 성공

매출 3.4조, 영업이익 2332억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와 메탈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서도 경영 효율화와 공정 혁신을 병행하며 수익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4315억원, 영업이익 233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3조1279억원) 대비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 성과와 메탈 트레이딩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사별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5338억원, 영업이익 142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2조7668억원 대비 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제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3925억원을 올렸으나 영업 손실 654억원을 냈다.

친환경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411억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 줄었고, 영업이익은 52% 감소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비전, 영업이익 1823억... 52% ‘쑹쑹’

유럽·중동 등 글로벌 시장 성과

한화비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앞세운 글로벌 시장 확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크게 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보적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화비전 시큐리티 부문은 2025년 ▲매출액 1조3351억원 ▲영업이익 1823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52% 각각 증가했다.

이번 성과의 대부분은 한화비전의 주무대인 ‘글로벌 시장’에서 나왔다. 특히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북

미지역 외에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영상 보안 수요가 커진 중동지역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급증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140층) 부르크 아지즈 곳곳에도 한화비전의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등 유럽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영국 보안 시장에서 한화비전은 점유율 2위(2024년 기준)를 기록했다. AI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 한화비전 카메라는 최근 유럽 지역 공항, 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잇따라 투입되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